

지혜 V I.

필요없는 소모전을 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1.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

사람에게 있어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이에대한 답은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즉,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 라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정체성처럼 하나님 앞에 비추어야 한다. 나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거울'에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야 한다. '나'를 보는 것에 한계가 있다. 부분적으로 볼 뿐이다. 전체를 볼 수 없다. 그 때는 눈을 돌려 내 전체를 비추고 있는 거울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 비추인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기쁨이시다. 생명이시다. 아름답고 영화로운 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본다. 그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자신을 발견한다. '내가 얼마나 가치있고, 존귀하며, 아름다운 존재' 인지 알게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시작한다. 이것이 결국 내 삶을 변화시킨다.

2. 사람에게 자신을 비추다.

그러나 곧 비극은 시작된다. 사람은 뱀의 유혹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 말고, 뱀이 창조한 이미지에 자신을 비춘다. 그 마음이 바로 '탐욕'이다.

[창세기 3:3-5]

3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4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5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3절)이다. 그러나 뱀은 죽지 않는다(4절) 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뒤엎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안에 탐욕의 거울을 만든다. 그 거울에 비추인 거짓형상을 보여준다. '하나님처럼 되어서(5절)' 무슨 말인가? '네가 하나님이다' 그 말은 네가 하나님이기에 누구에게도 비추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무신론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존재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시작은 의외로 단순했다. 하나님 말고 다른 형상에 자신을 비추게 하는 것이다.

'처럼'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자. 네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다. '처럼' 된다는 마귀의 간교함을 분별해야 한다. '사람'도 '하나님'도 아닌, 애매한 실체가 없는 존재를 보인다. 허상이다. 거짓말이다. 아무것도 없다. 실체가 없다.

3. 소모되는 인간의 삶.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언제나 공급을 얻었다. 살아갈 힘을 얻었다. 기쁨, 사랑, 행복, 능력 등을 얻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있는 권위를 위임해주셨다. 인간의 지혜 같으나 그 출처는 하나님이고, 인간의 능력 같으나 그 출처는 하나님이셨다. 힘을 써도 소모되지 않는다. 지치지 않는다. 계속 공급된다. 새 힘이 생겨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한 사람의 삶이었다.

그런데 비극이 시작되었다. 선악과를 먹은 후에 사람의 마음안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비추는 '죄의거울'이 생겨났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비추기 시작했다. 서로의 잘못을 비추기 시작했다.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 서로의 잘못을 극대화하여 비추기 시작했다. 사랑의 관계는 경쟁의 관계, 파괴의 관계, 서로를 죽이는 관계가 되었다. 사랑의 관계가 순간 적이되는 관계를 아담과 하와를 통해 목도하고 있다. 자신이 살기위해 서로를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이들의 에너지 소모를 보라.

[창세기 3:12-13]

12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13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꺾어서 먹었습니다."

4. 묶여 있는 삶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이 파괴되었을 때 이들은 모든 것을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았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영이 욕이 되었기 때문이다. 욕의 생각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영은 생명안에 거하지만, 욕은 생명을 따라가 소유하려 한다'

생명은 노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내가 생명의 존재(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죄성의 뿌리'로부터 오는 생각이 있다. 이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것이 '부정적'이다. 즉, 믿음의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로마서 8:6] 욕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런 삶의 특징은 '사람'에게 묶여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죄성의 거울은 언제나 자신을 사람에게 비춘다. 오늘날의 행복과 불행은 '사람'과의 비교에 있다. 사람에 묶여있는 삶이다.

* 가인의 묶임 / 사울의 묶임 / 바리새인의 묶임

대표적으로 사람에게 묶여 있는 삶이다. 가인은 아벨에게, 사울은 다윗에게,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묶여 있었다. 이들의 특징에 공통점이 있다.

- 1) 부정적 정체성 : 모든 것이 부정적이다. 좋은 마음으로 바라 본 적이 없다.
- 2) 비교, 시기, 질투 : 결국 이들은 비교의 대상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힘을 소비

이런 삶이 바로 '소모적 삶' 이다. 그래서 지친다. 영혼욕이 파괴된다.

5. 하나님 앞에 선 왕의 생각과 마음

(1) 축복의 삶을 살라 (최선)

사람에게 묶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원리를 알아야 한다. 우리는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축복으로 통치하는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정적 정체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왕의 마음으로 축복해야 한다. 비판보다 축복이 강하다. 저주보다 사랑이 강하다. 어둠보다 빛이 강하다.

(2) 축복하기가 어려우면 정리하라 (차선)

이것은 내 자신을 정리하라는 것이다. 영향받지 말라는 것이다. 물론 차선이지만 도움이 된다. 적극적으로 내가 묶이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3) 중요한 것은 비판의 마음에 내 스스로가 묶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4) 예수 우리 왕

예수님의 삶을 보라.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을 보지 않았다. 배반하는 제자들을 알았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엄청난 힘이 소모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1%의 힘도 소모되는 일에 낭비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축복이셨고, 치유이셨고, 회복이셨고, 긍휼이셨다. 그 마음으로 통치하셨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가 우리안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축복하라. 긍휼히 여기라.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하늘을 보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가 위로부터 온다. 할렐루야.